

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

- 금융감독원, 2024. 6

◆ '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97.5% (2,537사) 로 新외감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√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非적정'인 기업은 2.5% (65사) 로, '계속기업 불확실성', '종속·관계기업', '기초 재무제표'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.

√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적정'이라도 감사인이 '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'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사 (3.9%) 입니다.

◆ '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97.3% (1,544사) 로 전기 (97.5%, 1,472사) 와 유사한 수준입니다.

√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'非적정'인 기업 (2.7%, 43사) 중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'손상 (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), 공정가치 평가 (금융상품)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'에서 지적되었습니다.

√ 경영진·감사기구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.

[정보이용자 유의사항]

- 1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위험이 크므로 투자 의사 결정 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2 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평가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.
-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'非적정'인 경우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(사업보고서 첨부)에 시정 계획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
I

재무제표 감사의견

- ◆ '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(2,602사) 의 97.5% (2,537사) 로 예년 수준을 유지
- ◆ '적정 의견'이라도 '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'이 기재된 기업이 98사 (3.9%) 포함 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주의 필요
- ◆ '非적정' 의견 (65사) 은 주로 '계속기업 불확실성', '종속·관계기업', '기초 재무제표', '특수관계자 거래'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

1 재무제표 감사 적정 의견

- (개황)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(2,602사*) 의 97.5% (2,537사) 로 新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% 수준 유지**
 - * '23년 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
 - ** 적정의견 비중(%) : ('19) 97.2 → ('20) 97.0 → ('21) 97.2 → ('22) 97.9 → ('23) 97.5
 - (시장별) 코스피 (98.1%), 코스닥 (97.3%), 코넥스 (96.0%) 順
 - (규모별) 규모에 비례하여 2조 원 이상이 99.5% (非적정 태영건설 1사)로 가장 높고, 1천억 원 미만이 96.1%로 가장 낮음

'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(단위 : 사, %)

구 분	시장별			규모별				합 계
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	2조원 이상	2조원~5천억원	5천억원~1천억원	1천억원 미만	
적정 의견 (적정 비중)	793 (98.1)	1,624 (97.3)	120 (96.0)	199 (99.5)	339 (99.4)	1,046 (97.8)	953 (96.1)	2,537 (97.5)

- (계속기업 불확실성) 적정 의견 기업 이라도 감사인이 '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*'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사 (3.9%) 에 달함
 - *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적절히 공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“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”이라는 별도 단락을 포함해야 함
 - 이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 위험이 높다*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
 - * '22년에 '적정 의견'을 받았으나 '계속기업 불확실성'이 기재된 상장사(85사)의 25.9%가 '23년에 '비적정 의견'을 받았으며, 이는 미기재 기업 (1.8%)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

2 재무제표 감사 非적정 의견

-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非적정'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(2,602사)의 2.5% (65사)로 전기(2.1%, 53사) 대비 소폭 증가(0.4%p↑, 12사↑)
 - (의견별) '의견거절' 기업은 57사로 전기(46사) 대비 11사 증가했고, '한정'은 8사로 전기(7사) 대비 1사 증가

'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법인 현황 (단위 : 사, %)

구분	'23년(A)				'22년(B)	증감(A-B)
	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		
의견거절	57	12	40	5	46	+11
한정	8	3	5	-	7	+ 1
합계 (非적정 비중)	65 (2.5)	15 (1.9)	45 (2.7)	5 (4.0)	53 (2.1)	+12 (+0.4)

- '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기업(65사) 중 21사(32.3%)는 '22년 감사의견도 非적정으로 2년 연속 非적정에 해당
- (사유별) '계속기업 불확실성(21.6%, 33사)'이 가장 많았고,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'중속·관계기업(14.4%, 22건)', '기초 재무제표(10.5%, 16건)', '특수관계자 거래(7.8%, 12건)' 등이 다수

재무제표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 1) (단위 : 건, %, %p)

非적정 사유 2)	'22년(A)	'23년(B)	증감(B-A)
• 계속기업 불확실성	27 (23.5)	33 (21.6)	+ 6 (Δ1.9)
• 감사 범위 제한	88 (76.5)	120 (78.4)	+32 (+1.9)
- 중속·관계기업 손상 등	12 (10.4)	22 (14.4)	+10 (+4.0)
- 기초 재무제표 3)	15 (13.0)	16 (10.5)	+ 1 (Δ2.5)
- 특수관계자 거래	7 (6.1)	12 (7.8)	+ 5 (+1.7)
- 투자·자금거래(CB 등)	12 (10.4)	11 (7.2)	Δ 1 (Δ3.2)
- 임원 횡령 등 회계부정	5 (4.3)	8 (5.2)	+ 3 (+0.9)
- 내부 통제 미비	6 (5.3)	6 (3.9)	- (Δ1.4)
- 기타 ⁴⁾	31 (27.0)	45 (29.4)	+14 (+2.4)
합계	115 (100.0)	153 (100.0)	+38

- * 1) 괄호 안은 당해 연도 非적정 사유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
- 2) 非적정 사유가 다수이면 중복 계산
- 3) 전기 감사의견이 非적정(14사)이거나, 당기 횡령 발생(2사)으로 기초 재무제표 신뢰성이 미흡
- 4) 재고자산, 매출, 금융자산 평가, 기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등



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

- ◆ '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(이하 '내부회계')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(1,587사)의 97.3% (1,544사)로 전기 (97.5%) 와 유사
- ◆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'비적정'인 상장법인은 총 43사 (2.7%) 로 '의견거절 (감사범위 제한)' 26사와 '부적정 (중요한 취약점 존재)' 17사로 구성
- ◆ 부적정 (17사) 상장법인의 경우 '손상·공정가치 평가·대손 설정'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 통제나, '자금 거래'와 관련된 부정 예방·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

1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

-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(1,587사*) 의 97.3% (1,544사) 로 전기(97.5%) 와 유사
 - * 내부회계 감사 대상 : ('19) 자산 2조 원 이상 → ('20) 5천억 원 이상 → ('22) 1천억 원 이상, 검토대상인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법인과 운영 예외 회사(종업원수 6인 미만) 등은 제외
 - (시장별) 코스피 (97.5%) 기업의 적정 비중이 코스닥 (97.1%)을 소폭 상회하나 격차는 0.4%p로 미미
 - (규모별) 규모에 비례하여 2조 원 이상의 적정 비중이 99.5%로 가장 높고, 5천억 원 미만이 96.3%로 가장 낮음

'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(단위 : 사, %)

구 분	시장별			규모별				합 계
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	2조원 이상	2조원~5천억원	5천억원~1천억원	1천억원 미만	
적정 의견 (적정 비중)	730 (97.5)	808 (97.1)	6 (100.0)	198 (99.5)	334 (99.1)	980 (96.7)	32 (84.2)	1,544 (97.3)

- ◆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
 - '23년 최초 시행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상기업 (181사)* 중 1사 (태영건설,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 거절) 를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
 - * 연결 내부회계 감사 대상 : ('23) 자산 2조 원 이상 → ('29) 5천억 원 이상 → ('30) 전체

☞ 인적·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법인 (자산 2조원 이상) 부터 단계적 시행하였고, 시행 시기도 유예*함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
* 연결 내부회계 시행 1년 유예 ('22년→'23년), 별도 신청법인은 2년 유예

2 내부회계 감사 非적정 의견

-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'非적정' 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(1,587사) 의 2.7% (43사) 로 전기 (2.5%, 38사) 대비 소폭 증가 (0.2%p ↑, 5사 ↑)
 - (의견별) '부적정 (중요한 취약점 有)'은 17사로 전기 대비 3사 감소했고, '의견 거절 (감사 범위 제한)'은 26사로 8사 증가

'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법인 현황 (단위 : 사, %)

구분	'23년(A)				'22년(B)	증감(A-B)
	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		
부 적 정	17	9	8	-	20	Δ3
의견거절	26	10	16	-	18	+8
합 계 (非적정 비중)	43 (2.7)	19 (2.5)	24 (2.9)	- (-)	38 (2.5)	+5 (+0.2)

- (중요한 취약점*)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'부적정'인 17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'내부통제 미비'로 인하여 '중대한 회계오류'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
 - *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
 - 종속·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,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, 채권 대손 설정 등 '평가' 관련 통제 미비가 다수
 -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

◆ 내부회계 감사의견 부적정 기업의 중요한 취약점 예시

내부통제 미비	회계처리 오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손상)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통제 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 손상차손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평가)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통제 활동이 비효과적으로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기손익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과 관련 평가손익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손) 관계기업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	▶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기업 대여금과 관련 대손상각비 등이 부적절하게 기록될 가능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자금거래) 인감 사용의 완전성·정확성을 검토하는 내부 통제가 비효과적으로 운영 	▶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채가 불완전하게 기록되거나, 우발상황이 부적절하게 공시될 가능성

3 경영진·감사기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

-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'비적정'인 상장법인 (43사) 중에 경영진·감사기구가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에 '중요한 취약점'을 공시한 기업은 9사 (20.9%), 이에 대한 '시정 계획'까지 공시한 기업은 8사 (18.6%)에 불과
 - 유의 사항 배포 등을 통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·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

◆ 경영진·감사기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·보고 의무

- (대표이사·내부회계관리자)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·운영되었는지 평가하고, '운영실태 보고서 (사업보고서 첨부)'를 작성하여 주주총회·이사회·감사기구에 보고
 - 중요한 취약점 등에 대한 적시 시정 체계를 마련하고,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
- (감사·감사위원회)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하고 '평가보고서 (사업보고서 첨부)'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
 - 운영실태 보고서 상의 미비점 평가,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확인 등 포함

4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

-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'비적정'인 상장법인 (43사)의 대부분 (29사)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'비적정'이나, 일부(14사)는 '적정' 의견
 -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, 감사과정에서 회계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이 가능하나,
 - 회계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·보완할 필요

'23년 내부회계 非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(단위 : 사, %)

'23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非적정	'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				적정
	非적정	의견거절		한정	
내부회계 부 적 정	17 (39.5)	6 (14.0)	3 (7.0)	3 (7.0)	11 (25.5)
내부회계 의견거절	26 (60.5)	23 (53.5)	23 (53.5)	- (-)	3 (7.0)
합 계	43 (100.0)	29 (67.5)	26 (60.5)	3 (7.0)	14 (32.5)

* 괄호 안은 전체 非적정 상장법인 (43사) 중 차지하는 비중

III 회사 및 정보이용자 유의사항

1 회사 유의사항

① (재무제표 非적정)

감사대비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세요

- ✓ 계속기업 불확실성, 종속·관계기업, 특수관계자 거래, CB 등 투자·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절성 등을 사전 점검
- ※ 재무제표 非적정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, 종속·관계기업, 특수관계자 거래, CB 등 투자·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지속 발생

② (내부회계 非적정)

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세요

- ✓ 손상·평가·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오류 예방에 효과적인지 점검
- ※ 내부회계 非적정은 주로 손상·공정가치 평가·대손 관련 회계처리나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

③ (경영진·감사기구)

중요한 취약점과 시정계획을 공시하세요

- ✓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에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기재하고,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
- ※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'非적정'임에도 경영진·감사기구가 내부회계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 계획을 미기재한 상장법인이 다수
- ⇒ '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·보고 기준'이 한국상장회사협회의 자율규정에서 「외감규정 시행



세칙」으로 이관 ('24년 시행) 됨에 따라 향후 기재 여부를 점검 예정

2 정보이용자 유의사항

① (계속기업 불확실성)

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

- ✓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감사인이 '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'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법인은 위험이 크므로 투자 의사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

② (감사의견 비적정)

非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세요

- ✓ 재무제표 비적정 및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*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 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
- * 계속기업 불확실성, 종속·관계기업, 특수관계자 거래, 손상·평가·대손 및 자금거래 관련 통제 미비 등

③ (중요한 취약점)

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을 확인하세요

- ✓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회계오류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, 내부회계 운영실태·평가보고서(사업보고서 첨부)에 시정 계획 기재 여부 등을 확인
- ※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'非적정'이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이 존재

IV 향후 계획

- 경영진·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배포·안내
-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,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 유도
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·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정착을 지속 지원